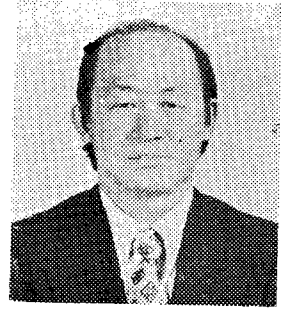


## 都市化地域에서의 農業水利

李 熙 榮

(서울市立大學 教授)



最近急激한 經濟社會의 發展에 따른 물利用의 大幅的인 變動等에 對應하여 農業用水의 實態를 檢討하고 合理化를 꾀하기 위한 問題點 및 具體的인 方法等에 대하여 調査 研究가 必要하게 되었다.

물은 그 存在狀態의 特性和 各種 利水上의 特徵等에서 複雜한 問題를 內包하고 있다. 特히 農業用水는 一率的으로 普遍化되어 있어 그 利用의 實態를 計數化할수 없으나 社會的인 물利用量은 時代와 함께 急增하고 있으므로 그 利用內容을 充分히 把握치 못하고 새로운 물利用計劃이나 利水에 關하여 論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地方, 都市에 있어서의 물問題, 새로운 水資源開發 方法의 評價, 各種開發計劃과의 調整의 必要, 水資源開發財源의 重要性, 나아가서는 水質保全 問題等과의 關係를 깊이 理解시켜, 물은 有限한 것이며 貴重한 存在라는 것이 一般에게 널리 理解되고 水資源開發에 대한 一般의 認識이 높아져야 한다.

물의 重要性에 대한 認識을 學校教育에서 取扱함은 勿論이고 社會教育으로서도 普給시키는 것이 重要하다.

### 1. 都市와 農業水利와의 關係

이제까지는 農業水利와 都市化와는 別個로 보아왔으나 이는 再考해야 할 問題라 생각된다. 즉 이제까지의 農業水利는 限定된 受益農業者集團에 의한 自治的運營이라 할수 있다. 이는 都市化속에서도 基本的인 것은 바꿀수 없었다. 그러나 農地가 宅地化됨에 따라 農業用水路和 農業排水路가 都市下水路로서 利用되며, 農業用水가 都市雜用水로서 널리 使用되는等 여러가지 形態로서 都市가 農業水利의 不特定受益者로서 廣範圍하게 發生하나 農業水利의 管理運營에 都市側은 負擔金, 補助金 또는 補償金을 내는 形式으로 그치고 直接的으로 管理運營에 關係되는 것을 도리어 避했다. 그러나 都市化가 顯著히 進行되어 殘存農業者集團만으로는 農業水利의 管理運營이 困難한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가 큰문제이나 實際的으로는 管理運營이 포기되거나 或은 都市側에 全部 맡기고 農業者는 殘存農地의 水利保障만의 條件을 받는 것이 一般的이다. 그러나 市街地化區域農地는 宅地化가 進行되면서도 農業的土地利用이 繼續됨으로 都市속의 農業水利는 결코 無視할수 없으며 그 役割은 크다.

都市속의 農業水利를 存續시키는 農業을 保障하면서 都市에 맞게 再整理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都市側과 農業側의 協同이 不可缺少하다. 오늘날에는 이와같은 農業水利가 要求된다고 생각된다.

## 2. 農業用水 合理化에 대한 前提條件

工業用水, 生活用水 등이 農業用水에 대한 合理化의 條件은 첫째는 新規水利의 容認을 容易하게 하자하는 것이다. 이는 實際의 河川에서 上流에서 下流로 向하여 河川水의 反復特性에 따라 區劃을 決定하면서 每區劃에 適當한 取水口의 合併化를 推進하는 것이다. 이에는 農業用水만이 아니라 新規의 都市用水를 包含한 他種의 水利와의 合併도 되어야 할것이다. 둘째는 取水量을 限定하자하는 것이다. 農業用水에 對하여 灌溉期別 取水量의 限定을 要求하는 것이다. 이는 댐의 貯水 및 新規水利에 對한 流量保障때문에도 必要不可缺할 것이다. 셋째는 節水를 하자하는 것이다. 即 水路에서의 損失을 解消해야 한다는 것이며 灌溉方法의 改善等이다. 넷째는 農業內에서 生기는 餘剩水를 다른 目的의 用水에 轉用하자하는 것이다. 基幹施設를 新規都市用水와 共用함으로써 農業餘剩水의 轉用이 技術적으로 可能하다. 共用에 있어서는 그의 施設建設費 및 維持費를 都市側이 共用의 程度에 따라 負擔하는것이 前提條件이다.

## 3. 農業用水의 合理化 對策

都市近郊의 農業地帶에 있어서 農業水利施設 등의 整備를 하여 地域農業의 近代化를 促進과 同時에 이 結果 生인 剩餘水를 確保하여 都市用水에 轉用하는 것이 農業用水合理化 對策이라 할수 있다. 即 農業은 都市에 물을 提供하고 그 대신 都市는 農業水利施設에 必要할 資金을 提供한다. 지금으로 부터는 市街地化區域內에서도 農業과 調和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都市計劃과 土地改良事業을 共有하는 性格의 土地基盤整備가 都市側과 農業側의 共同事業으로써 推進되어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農業水利의 合理化學業은 다만 農業用水를 都市用水로 轉用하고 都市近郊의 農業地帶의 農業水利施設整備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市街地化區域을 包含한 都市化地域의 農地綜合整備事業을 先導하고 그를 實現해 나가는 役割을 擔當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나 이것은 都市地域의 水利를 包含한 農地를 하나로 본 觀點이나, 農業水利合理化學業속에는 水資源의 再配分이라는 土地와 相對적으로 獨立한 立場에서 論해야 할 課題도 包含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農業水利의 基幹施設의 新設, 改良, 管理 등을 合理化하여 水資源의 再配分을 廣域的인 規模에서 考察하는 경우는 農地의 綜合整備라는 觀點보다도 水資源自體의 配分計劃이 더 重要하게 된다.

農業水利의 合理化對策事業을 앞으로는 都市化地域의 農地綜合整備事業과 基幹的인 水資源再配分事業이라는 相異한 性格을 갖는 것으로 分化, 發展되어 갈것으로 생각된다.

## 4. 計劃 基本方向

市街地化區域의 農地는 앞으로 必要한 宅地의 需要에 應함과 同時에 農業을 持續해나가야 하며, 市街地化區域을 包含하는 農業水利는 農業을 계속하는 農地를 充分히 뒷받침하는 것으로

維持되며 發展시킴과 同時に 都市에 適合토록 再整備될 必要가 있다. 이와 같이 서로 對立되는 兩側面을 併行하여 適切하게 推進해 나간다는 것이 都市化地域의 基本方向이 안될수 없다.

市街地化區域農地의 都市計劃을 機械的인 線긋기式으로 處理하는 것은 엄격히 삼가 해야 한다. 즉 市街地化가 進行된 곳에 A農地, B農地는 宅地化되는 方向으로 推進하기 쉽게되고 또 市街地化가 잘 進行되지 않은 곳에 있는 C農地는 農業地로써 比較的 適合할것이다. 이러한 傾向을 自然的으로 自體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傾向으로 되는것은 線긋기에 의하여 固定化할것이 아니라 여러가지의 施策에 의하여 助長하고 實質的으로 區分해 나가는 것이 適當할 것이다. 또 農業者의 意思를 토대로 하여 一定期間 農業用地로 하여 地區를 指定하는 生産綠地 制度도 有效하다고 생각된다. 農業存續을 하기 위해서는 線긋기를 하지않고 宅地를 容認하면서 農業存續希望者에 의하는 것을 基本的인 政策으로 되어야 한다. 즉 市街地化區域農地에 대한 基本的施策으로서는 機械的인 線긋기式의 發想은 排除하고 한쪽에서는 宅地가 進行되는 施策을 取하면서 한편으로는 農業存續이 되는 施策을 取한다는 高度의 誘導策이 取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어디까지나 農業者의 自由로운 意思를 尊重하는 것이 前提로 되어야 한다.